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농어촌 100교회 운동 60교회 후원자 확정

우리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을 펴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한 해동안 이 운동을 전개해 왔다.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의 자립을 도우므로써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다.

우리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남짓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해 갈 수도도록 향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교회 100교회운동의 또다른 취지이다.

▼100교회운동 결연 현황



작년에는 성도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107개 교회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지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후원자와 농어촌 교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좀더 실제적인 후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100교회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통해 농어촌 목회자 초청 신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족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심도 있게 펼칠 계획도 가지고 있다.

1월 24일 현재 총 60개의 농어촌 교회가 우리교회의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위원회 혹은 가정이나 개인과 결연이 확정되었다(교회명과 결연자 명단은 4면 참고).

농어촌의 한 교회를 돕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우선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 지원금은 주일예배 시 '농어촌 100교회운동'라고 표시된 붉은색 봉투를 활용하면 되는 데 지원금은 매주 셋째 주 화요일에 자매 교회로 송금되므로 매월 셋째 주일까지는 그달분의 후원금을 내야 한다.

100교회운동본부는 작년에 참여했다라도 올해에 계속 지원하기를 원하면 재신청을 해 줄 것과 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여 행정상 차질이 없도록 도와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윤곽을 드러낸 새 예배당의 모습

- 정립건축이 설계 맡기로 -

건축위원회 설계분과 위원회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5개 설계회사가 제출한 서울교회 새 예배당 신축계획(안)을 면밀히 검토 평가한 후, 기술과 경험 그리고 신뢰를 쌓아온 정립건축(회장: 김정철 장로)에서 우리교회 새 예배당의 설계를 맡도록 건축위원회에 천거했다. 건축위원회는 25일에 이를 재검토한 후 설계분과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이를 당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기초 설계가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당회에서 통과될 경우 설계도의 완성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립건축이 제출한 새 예배당의 입면도와 투시도, 모형이 4층 복도에 전시되어 있다. 이는 앞으로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랫동안 기도해 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의 윤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기도회 갖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위원장: 임광식 장로)는 새 예배당의 건축설계완성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오는 2월 1일(목) 오후 7시 교회출발하여 경기도 기흥에서 갖게 되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새 예배당 건축의 구체적인 일정표도 협의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 박철훈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교회 안팎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더욱 뜨거운 사명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로 퍼지는 서울교회의 메시지

미국 나성(L.A)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코리아(Radio Korea)에서는 우리교회 주일예배 실황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교민 사회에 전파로 띄우고 있다. 새해 들어 현지 교민들로부터 "하루를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교민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 오고 있다.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에서는 현재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를 시청권으로 갖고 있는 아세아방송·극동방송 그리고 기독교방송을 통해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간 해외의 한국어 방송사들이 우리교회 예배실황을 방송하고 싶다는 요청이 답지하였지만 위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이를 자제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나성의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을 계기로 협력 선교차원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 방송을 통한 전도 사역을 해외로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교회 예배실황을 담은 녹음테이프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목회자는 물론, 군부대, 병원 등 특수 전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성도들의 신앙성숙에 기여하고 있다.

미 2사단 군목단 초청 위로잔치

선교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에서는 오는 30일(화) 오후 7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질서를 위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고 있는 미 2사단 소속 군목을 초청, 위로회를 갖는다.

참세기 강해



요셉의 형제들

(37장 5 - 24절)

이종운 목사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할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취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독립운동에 참여할 줄도 모르는 양민들이 수없이 학살당했고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야만적 행동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분개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제 요셉에게 취한 행동은 잔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의 후손들의 행위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위가 그러했으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잔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단결하는 매우 잔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비극의 원인: 쓴뿌리

죄의 원인을 살펴보면 교만이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시기심은 미움을 가져오게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부터 요셉을 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요셉을 시기했고 시기의 쓴뿌리가 미움으로, 마침내 살인으로까지 전개되었습니다.

비교의식은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시기심은 미움을 가져오게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잠14:30),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3:16)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격한 반항입니다. 고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요셉의 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형들은 그 이전에도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장자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 주신 것이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요셉의 첫번째 꿈은 곡식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것은 장차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형들은 이때부터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그에게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꿈입니다(10절).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증언을 싫어했습니다. 그 꿈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싫어한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꿈을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며 비웃은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늘 만족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자이며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 역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2. 자라나는 쓴뿌리: 미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할 뿐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미움의 바탕에는 항상 질투심이 깔려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기사가 본문에 세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4, 5, 8절). 요셉의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한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요셉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자신의 불경함 때문에 더욱 요셉을 싫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면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5:18-19).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3. 쓴뿌리의 열매: 살인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대치되는 죄의 행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열거된 육체의 일에 ‘살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기, 원수맺는 일은 살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시기와 미움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빌1:15-17). 심지어 믿음으로 형제를 대항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시기는 미움을, 미움은 살인을 낳습니다.

형들의 조롱을 받았던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는 빌림보서 2장에 나타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순례자 컬럼 ✦

“지도자의 도덕성”

기계의 세계에는 지도자가 필요없다. 동물의 세계에는 가끔 지도자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질서를 필요로 하는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집단의 목적에 따라 지도자의 자질과 위치는 다를 것이지만, 오늘날 지도자의 권위는 인격적이기 보다는 기능 중심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만을 갖고 평가할 뿐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더욱 조직화 되어가므로 지도자 한 사람의 과오와 부도덕성은 사회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는 더 윤리적이길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윤리적 시민과 그 진리를 행하는 도덕적 지도자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건전한 사회발전은 가능하다.

“주님! 제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대학부

금요심야예배 후 철야기도회

나소정 (대학부)

▶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

청년부

수요II부 예배 후 기도모임

정규호 (청년부)

금요 철야예배 후 11시부터 다음 날 2시까지 3시간에 걸친 대학부 기도회에는 매주 대학부 회원 10여 명과 지도 목사님, 부감 집사님 내외분이 함께 자리한다.

3층 예배실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마치 가정집과 같은 오붓한 분위기에 간단한 다과도 마련되어 있다.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와 기타 반주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들의 표정은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갓 고등부를 졸업한 새내기들로부터 졸업반 선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난 한 주간의 신앙체험을 서로 나누고 기도제목에 일일이 적어가며 나눈 뒤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대학부를 지도하시는 원호 목사님의 '구별되는 삶'(출 10:21-23)이란 메시지를 경청하는 이들은 청년의 때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고(시119:9)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시119:11)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밤을 새워가며 깨치고 있었다.

대학부와 교회, 다가오는 동계수련회, 신입생들, 임직원 및 선생님들, 목사님을 위한 기도과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한 대학부 철야 기도회는, 소돔과 고모라가 기도할 단 10명이 없기로 멸망한 것을 기억하고 악한 때에 끝까지 깨어 근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빛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온 성도가 힘을 모으는 이때에 대학부 회원들은 매주일의 철야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의 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다.

교회 밖의 화려한 내은사인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밝은 광명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교회 대학·청년부 젊은이들 사이에 기도의 열기가 번져가고 있다.



사도 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이 '모이기'와 '기도하기'였음을 발견한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속한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사람으로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자는 가슴 벅찬 비전으로 "예수 사람·예수 바람"이라는 표어 아래 청년들은 하나가 되었다.

매 주일 집회 장소와 시간이 한정되어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청년들이지만 기도회를 갖자는 제안은 사실 용기가 필요했다. 직장, 학교 혹은 다른 다양한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데 따로 시간을 내는 일이 용이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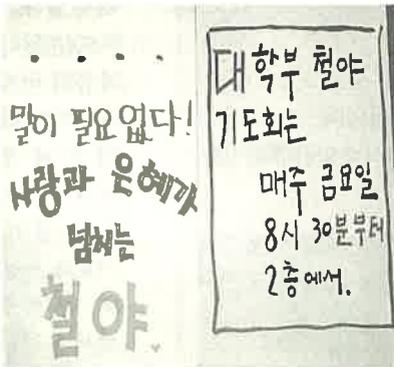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수요 II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 우리의 기도회는 언제부터인가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정해진 일로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매 주 수를 더해가는 기도의 용사들은 모임이 거듭될수록 기도의 능력과 긴급함과 그 기쁨을 더 크게 깊게 체험해 가고 있다. 또한 강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인도하시는 청년부 부장 김광신 장로님께서 청년들은 강한 도전을 받는다.

수술 중에 있는 사촌을 위해, 동생의 구원 문제, 자신의 결혼문제, 직장생활에서의 문제, 가족의 대소사 등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작은 천국... 기도회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간증은 늘어가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

매 주일 진행되는 형식은 다양하지만 성령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심을 본다. 기도회가 마치면 늦은 시간. 헤어지기가 아쉬워 교회 앞마당에서 긴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그날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다음주 수요일 청년들에게 변함없이, 그러나 새롭게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각자의 처소로 발길을 돌린다.

기도회가 반복될수록 청년들의 가슴에 더 크게 메아리치는 소리가 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 故 송만영 집사님을 애도하면서

“부활의 주님, 위로하여 주소서”

박춘봉 (집사, 8교구)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모세 선교회를 이끌어 오시던 송집사님! 지난 14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모세선교회를 위하여 쏟으신 자상하고 애정어린 손길들은 남은 믿음의 형제들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모세 회원 중에서도 가장 젊어 보이셨고 언제나 위풍당당한 모습과 해박한 지식으로 힘있게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일 많은 이 때에 집사님을 떠나 보내게 된 것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셔서 그 인자한 모습을 이 땅에서는 다시 뵈을 수 없지만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집사님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슬픔 가운데 처한 유가족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결연현황

1996년 1월 24일 현재(후원자는 무순)

■ 남선교회: 4교회 ■ 여전도회: 12교회 ■ 다락방: 6교회 ■ 찬양대: 2교회 ■ 당회소속기관: 2교회 ■ 교회학교: 1교회 ■ 개인 혹은 가정: 33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	순서	강산제일	강동기(전)	한나 1전도회
2	여수	둔병	강부영(전)	홍순복
3	충남	삼진	계용권(전)	베드로 1선교회
4	충북	종곡	곽노형(전)	박순옥
5	전북동	내도중앙	김동남(전)	임상헌
6	순서	우두	김명희(전)	한나 2전도회
7	군산	금성	김선영(목)	마리아 5전도회
8	충남	세곡장로	김진호(전)	가브리엘찬양대
9	경서	백마	김우동(전)	베드로 1선교회
10	목포	계곡제일	김재관(전)	루디아 6전도회
11	전북남	세심	김재욱(전)	서희숙
12	전북동	오산	오병암(전)	임광식
13	대전	마장	김철우(목)	정무균
14	목포	보길중앙	류영구(목)	예배위원회
15	대전서	용정	문성용(전)	호산나찬양대
16	충북	금관	문영길(목)	스데반회
17	경동	송천	박규삼(전)	요한 4선교회
18	부산	미문장애인	박서근(목)	정숙자(김혜근)
19	영주	석암	박영수(목)	오정수
20	평북	두릉제일	박원술(목)	베드로 1선교회
21	전북동	충성	윤동환(전)	김인수
22	목포	모도	선석기(전)	루디아 6
23	순천	월등남부	송기영(전)	잠실 3다락방
24	전북동	수동	신관철(전)	윤봉준(김명화)
25	전북동	신기	신정의(전)	박철훈(이경희)
26	전북동	부남	심정보(목)	홍정호
27	서울동남	부활(장애인)	안성준(목)	한나 1전도회
28	전북동	시온성	염일선(전)	최완
29	전북동	성운	이상남(전)	윤봉준
30	경서	금동	우병렬(목)	김복녀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31	경북	화산산성	윤일권(전)	임경민, 규연, 연주
32	여수	변촌	이금봉(전)	부교역자
33	김계	원평중앙	이상중(목)	노문환(장정화)
34	전북동	구락	이식노(목)	오선혜
35	충청	배다니	이인수(목)	한나 2전도회
36	목포	시온	임대준(전)	에스더 3전도회
37	순천	대곡	임평근(전)	한나 2전도회
38	여수	내경도	장 균(전)	안인호(이명신)
39	전북동	동화	전갑희(목)	우선자
40	순천	순천대영	정부오(목)	김경아
41	목포	연보리	정장현(전)	고운화
42	평북	마장	주추신(전)	마리아 4전도회
43	순서	백수	최수현(전)	한나 1전도회
44	순천	순천명성	최순중(목)	논현9, 10다락방
45	충북	마동	최태환(전)	임화춘, 신계순, 이영주
46	전북동	굴암	최효임(전)	오명걸
47	목포	잠덕	한승안(전)	에스더 6전도회
48	영주	덕계	정용철(전)	이영희
49	영주	전구	황영옥(전)	오윤걸
50	대구동	신명	김성계(목)	반포 1, 2, 4다락방
51	영주	춘양농아인	이종순(전)	박두호
52	전북남	반석	권연수(전)	현경옥
53	합동	신산	심규백(목)	대치 4다락방
54	개혁합동	정립중앙	정해술(목)	분당 2, 3다락방
55	전서	화봉	김용오(전)	최중서, 이계원, 최영수
56	충북	노티	고병채(전)	이영기
57	영주	이산제일	석성환(전)	정동호
58	순천	대구	김삼의열(목)	김태기
59	평북	작은형제	이중수(목)	마포 2층, 새대문 2다락방
60	충청	사곡	오유성(전)	청년부

■ 김동무

가라, 아니면 보내라!

○... 오늘은 세계선교에 사용될 선교회비를 작성하는 날이다. 세계선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바치는 헌금은 선교사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다.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것은 곧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와 물질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면서 격려의 편지라도 띄워보는 어떨지.

■ 목회자 동정 ■

로잔중앙위원회

- 내달 26일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

* 이종윤 목사는 오는 2월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로잔중앙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래함 목사를 비롯, 세계복음주의자들에 의해 국제 기구로 발족한 로잔위원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조직된 기독교 기구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단체로 알려져 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2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바 있다.

한편 한국 로잔위원회(의장: 이종윤 목사)는 오는 2월 9일 오전 7시 우리교회당에서 교계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종윤 목사는 29일(월) 육군 52사단에서 신앙강연을 하며 30일(화)에는 한기총 총회와 미 2사단 군목초청 만찬에 각각 참석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1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1월의 새가족 *

정호진 김유정 반영환 오순옥 송두심 김태수 김은희 유율상 정옥환 차동민 최정숙 안기천 박미숙 민광을 윤주현 민선주 민홍주 최병경 강성원 설국태 김영심 박진수 방홍태 이원준 이재일 조규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2. 계절학교의 준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3. 새가족들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